

## 정부, 낙동강권역 운문댐 가뭄에 선제 대응한다

- 운문댐 가뭄 대응 상황 점검, 관계기관간 협력방안 논의(7.16.)

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경북 청도군 소재 운문댐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가뭄상황 점검회의\*를 개최했다.

\* (주재) 행정안전부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(참석) 행정안전부, 기후에너지환경부, 농림축산식품부, 기상청,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농어촌공사 등

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는 운문댐의 현재 저수현황을 분석하고, 가뭄 대비 장·단기 용수공급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추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.

현재 경산·영천·청도 등 운문댐 유역에 내린 강수량은 371mm로 예년(581mm)의 64% 수준이며, 운문댐의 저수율은 7월 16일(목) 기준 29.6%에 불과한 상황이다.

정부에서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운문댐 저수율을 지속 모니터링하고, 용수 부족에 대비해 낙동강·금호강 등 대체수원 공급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. 아울러 필요시 병물 공급, 해당 지역 물 절약 캠페인 실시, 제한급수 시행 등 물 공급 관리와 절수 정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“지난해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가뭄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만큼, 대구·경북지역 용수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행정안전부<br>기후재난관리과   | 책임자 | 과 장   | 김진희 (044-205-636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수석전문관 | 김부생 (044-205-6369) |
|       | 기후에너지환경부<br>수자원개발과 | 책임자 | 과 장   | 이상훈 (044-201-7682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  | 안성훈 (044-201-7689) |
|       | 기후에너지환경부<br>물이용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  | 이정미 (044-201-714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  | 장화영 (044-201-7157) |

